

“ 믿음인가? 미신인가?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무엘상 6장 19~21절(구역 p.418)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미신’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3.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삼상 5장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_____ 땅에 닿았는지라”
4. 하나님이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상 6장 19절)
“여호와께서 벤세메스 사람들이 (_____)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업신여기고 인간의 호기심과 오만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고전 1~4장)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후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교회의 목회를 하게 되는데, 아볼로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 무리를 이루고, 이곳 저곳에서 서로 다른 분파를 만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편지(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바울은 간곡한 어조로 인간적인 교만과 분파주의, 비난을 버리고 서로 화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화요일(고전 5~7장)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죄악은 단호히 잘라내고, 이웃과의 관계는 겸손과 사랑으로 세워가라고 충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의 갈등과 허물을 공동체 내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부끄러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두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말로 책망하고, 지혜롭고 공정하게 불의를 판단할 것을 가르칩니다.



수요일(고전 8~11장) 고린도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혼란을 주자, 바울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아직 그만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연약한 형제가 보고 실족한다면, 그를 배려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 한 지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여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목요일(고전 12~14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는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화목을 이루고 사랑을 넘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인들은 이런 선물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은사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몸과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깊은 사랑을 품고 발휘되어야 합니다.



금요일(고전 15~16장)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독려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무리합니다. 썩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의 것을 붙잡으라고 조언합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토요일(고후 1~4장)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편지 사역을 통해 고린도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를 기대하던 바울은 뜻밖에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이 당도하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주 일(고후 5~9장) 성령의 감화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상황과 형편을 넘어 섬김에 앞장서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고린도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과정에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 편지에 연보를 부탁한 일로 큰 오해를 받았지만, 연보를 모으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일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미리 조심하기 위해, 많은 연보를 가져와 전달해야 하는 일을 모든 성도가 신뢰할 수 있는 디도에게 맡깁니다.



*** 합심기도 :**

1.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2.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3.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478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광서 부목사)